

웃음·상상 '아시아 놀이'로 배우는 시간 여행

ACC재단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12'

내달 2~3·5일 2교문문화재단 어린이문화원 일대 전통놀이·AI·AR 접목 콘텐츠 등 50여종 '다채'

아시아 다양한 놀이로 문화를 익히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대규모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명규)은 5월 2~3일과 5월 5일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12'를 갖는다.

4일은 ACC 휴관일로, 2일과 3일은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5일은 어린이문화원에서 각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놀이는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릴 '하우편 12'는 3개국 4개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체험과 교육, 공연, 전시 등 50여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전통 놀이부터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게임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통해 놀이를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아시아의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5월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가운데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아동권리선언식'과 이를 기념한 'ACC 시민오페스트

라'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는 '만나는 놀이, 즐기는 놀이, 그리고 놀이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만나는 놀이'에서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의 '던져봐요! 솟구 공작소', 퍼즐을 맞춰 5·18 이야기를 만나는 '2026 오월이 야기 퍼즐(ACC)'을 체험할 수 있다. 조선대 K-컬처공연·기획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출동! 낚시왕 바다 쓰레기 소탕 작전', 중앙아시아의 전통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온몸으로 굽는 레보쉬카'가 운영된다.

'즐기는 놀이'는 친구, 가족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러진다. 거대한 모양의 블록을 자유롭게 쌓고 허물며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그래픽 블록 놀이터', 다양한 색종이와 재료로 콜라주 우표를 만드는 '어린이날 기념 콜라주 우표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는 놀이'에서는 AI 기반 캐릭터 창작 프로그램 '나만의 AI 캐릭터 러너 만들기', 전기의 원리를 익히는 보드게임 '회로의 침공술' 등이 어린이 관객을 기다린다. 이와 함께 전통 골목 놀이에 AR을 더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와 함께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5월 2~3일과 5월 5일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12'를 갖는다.

서 기대를 모은다.

행사 기간, 아이의 언어나 심리 상태를 놀이를 통해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아이의 정서 상태를 그림으로 알아보는 'AI로 알아보는 나의 마음!', 조선대 인문대언어학과 연구소가 놀이와 과학이 결합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파악하는 '말의 비밀 탐험대'를 각각 선보인다.

해외 기관과의 협업 역시 눈에 띈다. 오스트리아 줌 어린이박물관의 '초상화? 신기한 드로잉 마신!',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의 '인형극 놀이터, 퍼펫 플레이! 이야기 살아나요!', 싱가포르 어린이박물관의

'싱가포르 놀이 탐험: 뱀과 사다리',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의 '우즈베키스탄과 함께하는 예술놀이!'가 준비돼 문화 체험 폭을 넓힌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교통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RISE남부대 컨소시엄, 초록우산 등 광주지역 기관들도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연계를 강화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5월2일 아시아문화광장 야외마당에서 인형극 '별주부전에 끼어든 인어공주', 참여형 공연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 여행 콘서트', 드로잉 퍼포먼

스 '캔버스 사파리' 드잉 준비된다. 또 5월 2~3일 어린이극장에서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ACC×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흔들흔들 우주'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부대행사로는 'ACC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가 사전 신청을 통해 400명을 모집, 대상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 유아와 초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K-POP 댄스 페스티벌이 마련된다. 오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온라인 예선을 실시하며, 본선은 5월 3일 아시아문화광장 야외 무대에

서 진행된다.

김명규 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과 결합한 예술 놀이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우편12'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사전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재단 누리집(www.a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원전부터 식민 경험까지...시대 비춘다

'원전마을 딜레마' 상영회 오늘 광주극장서 같은 날 태극 감독·30일 프랑스 고전도 선보

광주에서 독립·예술영화를 통해 역사와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상영회가 잇따라 열린다. 태극 실현영화 감독의 단편 상영과 원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랑스 작가이자 영화감독의 고전 작품이 소개되는 것.

먼저 24일 오후 7시 광주극장 1층 영화의집에서는 다큐멘터리 '원전마

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원전 유지와 백지화, 보상과 지원금, 수명 연장 과 폐쇄 논쟁 속에서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주민들의 현실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동시에 주목한다.

상영 후에는 다큐멘터리 출연자인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부산·울산·경주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논의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광주 북구 윤터강에서는 태극 영화 감독 랫차품 분반차축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단편영화 상영회가 펼쳐진다. 광주씨네클럽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상영회는 대구의 영화서점 이미지북에서 진행된 상영회를 바탕으로 한다. 스크린에는 랫차품 분반차축의 '식민주의 3부작'으로 불리는 단편 '마니잔의 이중생활'(2013)과 '안나와 왕자'(2020), '빨간 독수리'(2020)가 소개된다.

랫차품 분반차축 감독은 태극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적 현실을 탐구해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상영회에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외세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태극 사회의 억압된 기억을 장르적 방식으로 풀어낸 그의 독특한 미학을 엿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 30일에는 광주 북구 무등로 소재 필로딩하우스에서는 프랑스 작가이자 영화감독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마르그리트 뒤라스 영화 상영회'가 진행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을 딜레마 무료 상영회'가 열린다.

이번 상영회는 제56주년 자구의 날을 맞아 광주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주관한다. 작품은 1990년대 후반 울산 지역 원전 건설 논의를 배경으로, 원전 인접 마을 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선택의 문

독일로 전파되는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광주와 화상연결...양국서 시상송·토크쇼 행사 진행 김준태 시인 시편들 낭독, 26일 전일빌딩245 4층서

화상을 넘나들며 독일과 광주에서 시상 송과 토크쇼 행사가 펼쳐진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화상 줌(Zoom)으로 연결해 독일과 광주 간 시상송이 흔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어서 광주전남문단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작가회의 등에 따르면 독일 루르대학과 광주의 대표적 시인 김 'Zoom시상송&토크쇼' 행사가 오는 26일 오후 6시 전일빌딩245 4층 시민나루에서 진행된다. 독일에서는 보름 소재 루르대학교 한국어 및 문화부서가 주도해 26일 오전 11시 루르대 유니포럼 내 언어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에서는 전남 해남 출생 김준태 시인이, 독일에서는 35년 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배우로 활동했던 마리아 울프가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통역 진행은 양한주 교수(보름대)가 맡는다. 이날 양 교수는 서평도 맡게 된다. 독일 현지에서 출간된 김준태 시인의 시집 '물거미의 노래' (원천 이우디처음 출판사

판)를 텍스트로 당사자인 김 시인과 마리아 울프가 한국어와 독일어 등 이중언어로 시상송과 토크쇼를 진행한다. '물거미의 노래'는 김 시인이 자신의 시집 6권을 현지로 보낸 것을 그곳의 교수들이 60편을 엄선해 묶은 독일어판 시집이다.

이번 시상송·토크쇼 행사는 세계 3대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시상송과 강연 목적으로 초청을 받았으나 건강 상 여의치 않아 미뤄졌고, 올해 다시 도서전 현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독일 측에서 'Zoom시상송&토크쇼' 행사를 제안, 성사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낭독 제2부로 구성, 먼저 독일에서 이날 오전 개막사와 환영사, 작가 및 작품 소개, 작가 인사말 등이 이어진다. 개막사는 도로테아 호프만 교수(보름대 한국학과)가, 환영사는 마리아 울프 교수(보름대 한국학과)가 맡는다. 이어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Gwangju, du Kreuz Korea) 등이 낭송되고, 작가 인사말이 이뤄진다.

또 낭독 2부에서는 '시'(Gedichte), '감꽃'(Kakiblutten), '플라스틱 탁상시계도'(Die Plastiktischuhr), '참깨를 털면서'(Beim Dreschen des Sesams), '콩알 하나'(Eine Bohne), '대홍사 입구에서, 들다'(Am Eingang des Daehung) 등이 낭송되고 마지막으로 작



김준태 시인



양한주 보름대 교수



마리아 울프 배우

각각 응한다.

낭독 1부에서는 초상주의 시인 '개인'(Einer), '이타미 공항'(Itami-Flughafen), '체웅 에크'(Choeung Ek), '다시라기'(Dassiragi),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Gwangju, du Kreuz Korea) 등이 낭송되고, 작가 인사말이 이뤄진다.

또 낭독 2부에서는 '시'(Gedichte), '감꽃'(Kakiblutten), '플라스틱 탁상시계도'(Die Plastiktischuhr), '참깨를 털면서'(Beim Dreschen des Sesams), '콩알 하나'(Eine Bohne), '대홍사 입구에서, 들다'(Am Eingang des Daehung) 등이 낭송되고 마지막으로 작

가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Zoom시상송&토크쇼' 프로그램의 메인인 김준태 시인의 일부 시편들은 사면의 노래와 가락, 음악이 들리고, 이와 함께 불교적 모티프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는 그가 자라온 영성적 전통의 표현이자 과거와 현재,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매개자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사면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김준태 시인은 허리과 목 수술 등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로 전일빌딩 245에 머무르며 독서는 물론,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김형수 시인 초청 '인문학 산책' 강연

비움박물관, 24일 오후 7시

광주비움박물관은 4월 강연자로 시인이자 평전 작가인 김형수씨를 초청해 24일 오후 7시 '인문학 산책'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2026 비움박물관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 네 번째로 마련된다.

김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무등산을 위하여-거인의 평전 작가가 말하는 참삶의 힘'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강연은 김남주 시인의 대표작 '무등산

을 위하여' 낭송으로 시작된다. 이어 김 시인은 청년 시절 직접 겪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격변의 역사 속에서 마주한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낸 예정이다.

또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김남주 시인, 윤공희 대주교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을 다룬 평전 집필 과정에서 발견한 '참된 삶의 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특히 이번 강연은 다양한 인물의 삶을 탐구하며 얻은 통찰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광주비움박물관은 4월 강연자로 시인이자 평전 작가인 김형수씨를 초청해 24일 오후 7시 '인문학 산책'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인문학 산책' 강연 모습.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움박물관 이영화 관장은 "이번 강연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작가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

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6668.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